

돈암어문학 제30집

별쇄본 ISSN 1229-2117

만주 이야기와 운동주의 기억

김신정

2016. 12.

돈암어문학회

www.kci.go.kr

일반논문

만주 이야기와 운동주의 기억*

김신정**

차례

1. 서론
2. '간도'의 역사와 만주 이야기
3. 운동주의 기억과 만주 이야기
4. 만주 시기 운동주의 체험과 시
5. 결론

국문요약

본고는 운동주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또한 그에 관한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문제에 주목하여, '운동주 이야기'가 '만주 이야기'와 매개되는 과정, 특히 '만주'를 매개로 그에 관한 기억이 구성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운동주 이야기'는 "독립운동의 요람"에서 태어난 운동주를 한국독립운동사의 한 흐름으로 흡수하며, 그를 '저항'의 맥락에 위치짓는다. 그러나 운동주를 "암흑기의 별", 다시 말해 '암흑기'에 저항한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자 '민족시인', '국민시인'으로 기억할 때, 국민국가의 경계 밖에서 그 경계를 의문시하고 경계가 만들어내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8024951)

** 한국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 문제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했던 경계인으로서의 운동주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는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부단히 경계를 넘나들며 경계를 체험하고 인식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간도/만주는 그에게 그러한 '경계'를 예민하게 지각하게 하는 매개적 장치의 기능을 했다. 간도는 조선의 밖이자 제국의 안이었고, 또한 운동주 개인에게는 고향이면서 모국의 바깥이었다. 경계 바깥에 있었기에 그는 조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다시 간도를 떠나와 조선과 일본에 머물면서 간도의 복잡한 조건과 자신의 혼란스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자의 후예로서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던 그의 시에는 "남의 나라"에서 타민족과 함께 사는 일, 혹은 비국민으로서 사는 일에 대한 갈등과 불안, 깊은 고민이 나타나있다. 본고는, 지금까지 운동주 문학을 이해해 온 주류적 관점과 사고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구성된 민족 이야기, 만주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환기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경계인'으로서의 그의 경험과 문학 세계를 탐구하였다.

주제어: 운동주, 기억, 간도, 만주 이야기, 운동주 이야기, 경계

1. 서론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한국인 가운데 시인 운동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운동주를 오랫동안 '민족시인', '저항시인'으로 배우며 기억해왔고,¹⁾ 언제부턴가 그를 '국민시인'으로 부르

1)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운동주가 '민족시인', '저항시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된 최초의 계기는 시인의 '죽음'에 관한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 말기 일본 감옥에서 "독립운동"의 죄명으로 옥사했다는 사실은 동시대 친일인사들의 행적 및 글과 대비되어 '민족적'이고 '저항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왔다. 1950~60년대에는 '조국' 수호에 '자유 수호'의 의미가 부가되었고, 정병욱, 백철, 김현, 김윤식 등에 의해 그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미에 대한 논의가 진

고 있다.²⁾ 한국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민배우’, ‘국민여동생’, ‘국민간식’ 등 주로 대중문화나 대중의 일상과 관련된 분야 또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분야에서 사용된다. 최근에는 ‘국민’ 칭호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용례를 두루 살펴보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대표성과 대중성을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민’이란 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야 하며 그 분야에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인물 혹은 사물을 호명하는 수식어인 것이다.

이런 용례들을 생각해보면 ‘국민시인’이란 말은 다소 의외의 단어 조합으로 보인다. 우리의 통념상, 시는 연예인이나 간식, 맛집 등과 는 선뜻 연결되지 않는다. 시 장르 자체가 많은 대중에게 친숙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표성과 작품성은 몇몇 정전 급의 시인들에게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전 국민’에게 폭넓게 알려지고 호감과 사랑을 받는 시인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대표시인’, ‘명시인(名詩人)’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국민시인’은 그렇지 않은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시인’ 운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³⁾ ‘한국인의 애송시’,⁴⁾ ‘한국을 빛낸 위인들’,⁵⁾ ‘한국인이 알아

행되면서 “殉節의 시인”(정병욱), “암흑기 하늘의 별”(백철), “꺼지지 않는 저항의 문학”(백철), “식민지 후기의 대표적 저항시”(김현, 김윤식) 등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문학사, 교과서 등의 문학 제도를 통해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서술되었다.

- 2) ‘저항시인’, ‘민족시인’이라는 호칭은 1960~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주로 ‘민족시인’으로 불렸고, ‘애국시인’이라는 호칭도 사용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국민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주를 칭하는 경향이 강하다.
- 3) “운동주 ‘서시’ 1위 … 김지하, 박노해 뒤따라”, <한겨레>, 1988. 12. 27.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운동주 출판문화협 1,145명 설문조사”, <매일경제>, 1991. 9. 20.
- 4) “‘한국인의 애송시’ 광화문에서 느껴보세요”, <뉴스시스>, 2013. 10. 7.
- 5)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야 할 영웅 이야기⁶⁾의 인물로 빠짐없이 선정되고 있으며, 그 자신 창작자이면서 또한 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의 인물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다. 운동주는 어떻게 ‘국민시인’이 될 수 있었을까? ‘국민시인’으로서의 운동주는 우리 곁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을까? 문학 독자의 범위를 넘어 그가 ‘온 국민’들에게, 또한 한국 사회의 범위를 넘어 일본과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운동주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설⁷⁾이며 ‘신화⁸⁾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운동주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기억되고 또한 그에 관한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고찰하려 한다.⁹⁾ 운동주의 기억이 ‘민족 이야기’와 어떻게 매개되고 있는지, 특히 ‘만주’를 매개로 그에 관한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¹⁰⁾ 북간도 이민 3세인 운동주는 1917년 북간도

- 6)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인 10명은 누구인가”, <연합뉴스>, 2014. 11. 4.
- 7) 송우혜, “‘한일의 ‘전설’ 운동주”, <한국일보>, 2015. 3. 12.
- 8) 정명교, 「운동주가 우리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는 사실의 의미」, 『운동주 시인 유고, 유품 기증 특별전 자료집』, 연세대학교 운동주 기념사업회, 2013. 55쪽.
- 9) “기억을 논의한다는 것은 과거에 관한 지식이 현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억으로 과거를 논의하는 것은 모든 기억을 되살리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기억이 기억으로 남는 방식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이와사키 미노루·이타가키 류타·정지영, 「기억으로 동아시아 생각하기: ‘동아시아 기억의 장’ 탐색」, 『역사비평』 102, 2013. 285-288쪽.) 기억 연구의 관점을 이어받아 본고에서는 우리가 ‘만주’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 그리고 ‘운동주’에 관해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 온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만주에 관한 지식이 해방 후 남한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작동해왔는가, 그리고 그것은 현재 ‘운동주에 관한 기억’이 우리의 기억으로 남는 방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럼으로써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된 기억의 이면에서 체계적으로 망각된 기억들, 사라지거나 은폐되고 묻힌 기억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명동에서 태어나 1931년까지 그곳에서 성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구성된 운동주의 기억도 늘 처음은 북간도 이야기로 시작된다. 유교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발간 이후 운동주라는 인물과 생전의 그의 삶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하던 유족과 지인들은 운동주 문학의 출발점이 북간도임을 강조하며, 그가 나고 자란 간도와 그의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본고에서는 운동주 이야기에서 흔히 ‘간도’, ‘북간도’로 불리는 ‘만주’의 역사와 해방 후 ‘만주 이야기’의 수용 과정, 그리고 ‘만주’와 매개된 운동주 이야기의 구성 과정과 만주 시기 운동주의 시를 고찰함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운동주라는 기호가 어떤 기억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구성된 기억 담론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기억은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질문하고자 한다.

2. ‘간도’의 역사와 만주 이야기

‘간도’, ‘북간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다. 만주의 길림성 동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을 중국 현지에서는 현재 연길도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간도’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과 같은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다. 청태조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건국하고 북경에 입성한 후 그의 출생지인 이 지역을 오랫동안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이후 청국인과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한 뒤에는 근 200여년 동안 “가히 무인지경”¹¹⁾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10) 본고의 문제의식은 즐고, 「尹東柱」, 板垣 竜太、鄭智泳、岩崎 稔 編著, 『東アジアの 記憶の場』, 河出書房新社, 2011(한국어판, 김신정, 『운동주』, 정지영·이타가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저,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2015)의 연속선상에 있다.

11) 안수길, 『한국소설문학대계28: 북간도』, 동아출판사, 1995, 18쪽.

그러나 1860년대 두만강 이남의 조선인들이 월강하여 이 지역에서 몰래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함북 지방의 농민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사잇섬’, 간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때 ‘사잇섬’이란 월강하는 농민들 사이에 통하는 일종의 은어와 같은 것이었다. 안수길의 「북간도」는 이 때의 정황을 작품의 첫 머리에서 소개하고 있다.

“‘사잇섬’이란 이곳, 중성부(鍾城府) 중에서 동쪽으로 십 리 쯤 떨어진 이 동네 앞을 흐르는 두만강 흐름 속에 있는 섬이었다.

흡사 고구마 형국으로 생긴 사잇섬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주(沙柱)다. 주위가 십 리가 될까? 땅이 검어 기름질 것 같으나 모래로 이루어진지라 곡식이 되지 않았다.

(중략) ‘사잇섬 농사’란 여기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곁에 내세우는 표방에 지나지 않았다. 불모의 섬에서 어떻게 곡식이 나랴? 그러므로 사잇섬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사실은 대안인 청국 땅에 건너가는 것이었다. (중략) 사잇섬 농사는 이 고장 사람들의 삶의 한 가지 방편이기도 했다. 최근 몇 해 동안 진행되는 도농 방법이었다.”¹²⁾

‘사잇섬’으로 건너가 몰래 짓던 농사를 아예 본격적으로 이주하여 짓기 시작한 것이 1870~80년대였다. 이 시기 함북 지역의 많은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당시 조선 북부 지방의 연속되는 자연 재해로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¹³⁾ 지방 관리들의 폭정에 시달리고

12) 안수길, 앞의 책, 16-19쪽.

13) 1861, 1863, 1866년에 대 수재(水災)가 있었고, 1869, 1870년에 연속적인 큰 가뭄이 있었다. 이지영, 「19세기 말 청조의 대 간도 조선인 정책 - 越墾 韓人의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명청사연구』

있었고, 또 제도상으로는 청조의 봉급정책이 완화되고 심지어 일부 조선의 관리는 간도 이주와 개척을 사실상 목인 하에 장려하기도 했다.¹⁴⁾ 이주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1880년대 청조와 조선조 사이에 오가던 국경 분쟁이었다. 당시 국경 분쟁은 사실상 간도영유권 분쟁이자 간도 내 조선인들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기도 했다.¹⁵⁾ 청조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간도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기정사실화하려고 했고, 조선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미해결의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국경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만강을 건너 이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간도가 조선의 ‘옛 터의 일부분’¹⁶⁾이라는 생각과 함께 막연히 언젠가는 분쟁이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을 것이다. 근대적인 영토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때였다. 혹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장이 없더라도 당장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오직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희망의 강 건너”¹⁷⁾로 떠났다. 그 “강 건너”, 두만강 건너의 비옥한 땅이 바로 사잇섬, 간도였다.¹⁸⁾

운동주의 증조부 윤재옥도 이 시기에 간도로 이주했다. 1886년 윤재옥은 온 가족을 이끌고 함북 중성에서 북간도의 자동으로 이주했다. 이후 1900년 이웃 명동으로 거처를 옮겼고 1917년 12월 그곳에서 운동주가 태어났다.¹⁹⁾ 운동주 가족이 간도에 자리잡은 이후

32, 2009, 260쪽 참조.

14) 이지영, 앞의 논문, 259-265쪽, 이성환,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살림, 2004, 20-24쪽 참조.

15) 이성환, 앞의 책, 26-31쪽 참조.

16) 局子街 朴堃, “在間島 朝鮮人 社會의 過去와 現在와 將來”, 『개벽』 제13호, 1921.7.1.

17) 안수길, 앞의 책, 60쪽.

18) 혹은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간토(墾土)’라는 음이 와음된 것이라고도 한다.

19) 운동주 집안의 간도 이주 과정에 대해서는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 『월간중앙』 1976.4, 304-306쪽, 운동주의 출생

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했다. 초기에는 운동주 가족과 같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간도 이주가 시작되었으나, 한일병합(1910) 이후에는 정치적 이유로 조선을 떠나는 사람들,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간도로 향했다. 1920년대에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토지수탈이 본격화되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횡포를 피하고자 간에서 벗어나고자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간도로 떠난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30년대 일본이 만주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의 기지로 수탈/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신천지’ 만주로 향했다. 특히 1932년 만주국의 건국 이후, ‘만주광’²⁰⁾이 일어나고 만주가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면서 ‘제국의 신민’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의 이주 행렬이 이어졌다. 만주는, 그 안의 간도는, 출발지가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욕망으로 넘치는 복잡한 갈등의 공간이었다.

간도에 정착한 조선인들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처지를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족적(民族籍)과 국적, 영토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갈등이 조선인들의 거주권과 토지소유권을 끊임없이 위협했고, 따라서 그들은 무엇보다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권리, 즉 성원권을 보장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 이민 세대인 운동주 증조부의 이주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들이 정착한 간도의 국호는 청국에서 중화민국(1925)으로 바뀌었고 다시 만주사변(1931)이 일어나고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1932)이 건국되면서 만주국의 ‘국민’²¹⁾으로 다시 지위가 변화한다. 한편 그들이

에 대해서는 윤일주, 「선백의 생애」, 운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55, 208쪽 참조.

20) 愚石, 「현대 조선의 四大狂 - 만주광, 금광광, 미두광, 잡지광」, 『第一線』 2-8, 1932.9.

21) 두아라(Doura)가 지적했듯, “만주국이라는 국가를 만든 자들의

떠나온 조선은 을사보호조약(1905)과 한일병합(1910) 이후 실제적인 통치권을 일본에 양도하고 식민지로 전락한다.

당시 간도의 상황에 대해 1920년대 조선의 한 잡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間島의 사회는 실로 복잡하다. 中國사람도 있고 日本사람도 있고 露西亞사람도 米國사람 英國사람 獨逸사람도 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사람들은 自國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自國을 토대로 한 정치도 교육도 무엇도 한다. 그리하여 아모 세력이 엮는 朝鮮사람은 강자인 英日中獨등 세력에 의하여 간접으로 자기의 세력을 발휘하는 보호색의 생활을 꾀하는 데 불과하다.²²⁾

“中國사람”, “日本사람”, “露西亞사람”을 비롯해 영국, 미국,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간도에 모여든 이유는 당시 간도가 지닌 지정학적 의미와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과 청국 사이의 국경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조선이 식민화된 이후, ‘제국의 신민’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고, 일본의 세력화를 견제하려는 러시아와 구미 열강들은 간도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했다. 그러므로, 위의 글이 정확히 지적하는 대로 “아모 세력이 없는” 조선

인들은 스스로 “보호색”을 입고 변화하는 간도의 정세에 적응하는 길을 찾아야 했다. “보호색”을 띠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호색”을 입고 주변 환경에 동화된다는 뜻이면서 또한 “보호색” 아래 자기 몸을 감춘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보호색”은 동물들처럼 자기 몸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인 영일중국 등 세력에 의하여”, 다시 말해 주변 열강의 패권 다툼과 정세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야 했다. 비유하자면, 어떤 “보호색”을 입어야 할지 주의깊게 살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보호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곤경에 빠뜨리는 요인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간도 조선인들의 처지였다.

‘간도사람’이었던 소설가 안수길의 작품에는 당시 간도의 정황과 간도 조선인들의 불안정한 처지가 잘 드러난다. 그의 장편소설 <북간도>는 1800년대 말 ‘사잇섬’으로 월강하여 농사를 짓다가 간도로 이주한 ‘이한범’ 가족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그의 증손자인 ‘정수’가 8.15 해방을 맞이하는 장면에서 끝을 맺는다. 작품 속에서 주요 배경이 되는 ‘비봉촌’ 사람들은 토지 문제로 청국 사람들과 매사에 갈등을 겪는다. 이주민이자 농사가 생업인 그들에게 ‘토지’ 문제란 거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으나, 이 문제로 청국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난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만주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세력이 변화하면서 그들은 러시아, 일본의 힘을 빌어 청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간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는다. 이후 한일병합과 일제의 만몽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혹은 협력과 연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간도에서 조선인들이 처한 이같은 미묘한 위치는 만주 사변과 만주국 건국 이후에 더욱 복잡한 문제로 부각된다.

의도는 제국주의적이었지만, 만주국은 조선이나 대만과 달리 식민지가 아니라 국민국가 형태로 시작되었다.”(P. 두아라,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22쪽.) 그러나 일본 본토와 만주 관동군, 조선 총독부 등의 이해관계와 관점의 차이로 인해, 만주국의 국적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만주국이 패망하기까지 만주국 ‘국민’에게 국적은 주어지지 않았다. 만주국 국적법에 관한 당시의 논의과정은 최봉룡, 「만주국의 국적법을 둘러싼 딜레마 : 조선인의 ‘이중국적’ 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호, 2011, 278-287쪽 참조.

22) 鄭福今, 「間島社會의 縱橫觀」, 『개벽』 50호, 1924.8.1.

1931년 일본관동군의 만주 사변 발발로 세워진 만주국은 실질적으로 일제의 괴뢰국이었으나, 국제적 역학 관계를 고려해 ‘독립국가’ 형태로 수립되었다. ‘독립국’ 만주국은 ‘오족협화’의 이념, 즉 한족, 만주족, 몽골족, 그리고 일본인, 조선인들의 “평등한 권력”²³⁾과 공동 번영을 표방했다. 만주국의 「建國宣言」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릇 신국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는 종족의 岐視, 尊卑의 분별을 하지 않는다. 原有의 漢族, 滿族, 蒙族 및 일본, 조선의 各族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國人들이 長久한 居留를 願하는 자도 역시 평등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응당 얻어야 할 권리를 보장하며 그에 대하여 추호도 侵損하지 않는다.²⁴⁾

오족(五族)의 평등, 공존, 협화를 내세우는 만주국의 건국은 재만 조선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그들에게 만주국 건국이라는 사건은 추상적 규정이나 구체적 생활 면에서 모두 큰 변화의 계기로 다가갔던 듯하다. 소설 「북간도」에서 안수길은 “만주는 하룻밤 사이에 판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며, 그 “판세상”을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제 간도 천지는 평온무사하게 됐다. 그러나 그것은 간도도 만주의 다른 지역과 더불어 일본이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상삼봉에서의 경편 철도가 광개 철도로 바뀌었다.
경성에서 청진, 회령, 용정을 거쳐 길림, 신경에 급행이 쏜

23) 「人權保障條令」, 永松淺造, 『만주건국법』, 學友館版, 소화17년, 26. 최봉룡, 앞의 글, 288쪽에서 재인용.
24) 永松淺造, 『만주건국법』, 學友館版, 소화17년, 129쪽.

살같이 달렸다.
장진강의 전기가 이곳까지 송전돼 왔다.
이름만 만주일 뿐, 간도일 뿐, 조선 내지와 다를 것이 없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더욱 그랬다.
어둠던 간도도 환히 밝아졌다.
기후도 포근해진 듯했다.
흙도, 땅도 맑아진 것 같았다.
그러나 북간도는 어두워 가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 봉오골 싸움이 있었던가? 청산리 싸움이 무언가? 기억에 생생한 사람은 안타깝기만 했다. 그러나 그런 걸 즐겨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으나 듣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북간도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동경 유학생도 많아졌고, 정부의 고관이 되는 사람도 늘어났다. 군인, 기사(技士)들도 배출됐다.
밝아진 북간도를 찾아 조선 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왔다.
망명의 숨어 넘는 두만강이 아니었다. 급행을 타고 담배 한 모금에 넘는 두만강이었다.
한두 호의 가족들이 말등에 술을 싣고 눈보라에 휘몰리면서 넘는 두만강이 아니었다. 지도원의 인술 밑에 개척민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집단을 이루어 넘어오는 두만강 건너였다.
그러나 북간도는 어둠 속에 잠겨 가고 있었다.²⁵⁾

위의 인용문에서 ‘밝음’이 가리키는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하는 반면, ‘어두움’에 대해서는 “일본이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진술 외에는 단지 동일한 단어만 반복되고 있다. 해방 후, 정확히는 1959년에서 67년까지 『사상계』에 연재된 이 작품에는 물론, 해방 전의 시간을 바라보는 현재적 시각, 작가의 자기 검열, 당대의 민족주의와 일본에 대한 시각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

25) 안수길, 앞의 책, 712-713쪽.

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창작 당시의 상황과 작가의 태도를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문장에서 만주사변 직후 만주에 불어온 활기차면서도 미묘한 ‘밝음’의 징후들을 확인하게 된다.

만주국 건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져온 가시적인 변화들 앞에서 혼돈스러웠던 것은 재만조선인들만이 아니었다. 만주에서 일어난 변화의 기운은 조선반도까지 불어왔다.

이번 滿洲에서 南京政府의 옛 勢力이 물러가고 滿洲政府의 새 政權이 생겼으니 이제 間島는 南京政府에서 떠러져 滿洲政府에 붙을 것인가? 그러치 않으면 歷史上으로 깊은 因緣이 있고 開拓上으로 많은 功이 있는 朝鮮사람의 間島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엉터리 없는 希望과 이 땅에서 半世紀가 남는 歲月이 흐르는 동안에 놀리우고 부닥이며 아프고 괴로운 生活味를 맛보면서 실같은 목숨을 그날 그날 이어가는 朝鮮사람들은 滿洲國이 民族自決을 宣言하며 王道政治를 標榜하고 일어서는 이때를 틈타서 그 生存을 繁榮케 하며 그 살림을 向上케 할 새로운 運動과 줄기찬 노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제 朝鮮사람의 動向은 과연 어떠한가?²⁶⁾

1932년 5월 1일, 만주국 수립 후 정확히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위의 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만주국이 민족자결을 선언하며 왕도정치를 표방하고 일어서는 이 때”라는 문장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만주국은 ‘독립국가’를 표방하며 명문화된 선언을 통해 ‘오족협화’의 표어를 내걸었다. 또한 「人權保障條令」에서도 “만주국에 거주하는 인민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의 평등한 권력을 도모한다”²⁷⁾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주국이 표방한

26) 尹和洙, 「間島問題란 무엇인가」, 『동광』 제33호, 1932. 05. 01.

27) 永松淺造, 『만주건국법』, 學友館版, 소화17년, 129쪽.

이러한 논리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중국인, 일본인 등 다양한 민족들의 틈새에서 부대끼며 살았던 재만조선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조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희망대로 재만조선인들의 현실은 변화했을까? 위의 논설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간도는 남경정부에서 떠러져 만주정부에 붙을 것인가? 그러치 않으면...(략)...조선사람의 간도가 될 수 있을까?”하는 “엉터리 없는 희망”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간도’의 지정학적 위치, 말하자면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서의 ‘간도’의 특성이 드러난다. ‘남경정부’와 ‘만주정부’ 사이, 달리 말해 중국인과 일본인, 또는 중화민국의 복잡한 정치상황과 점차 만주지배를 확대해나가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 사이에서 간도의 조선인들은 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더욱이 혹여라도 “조선사람의 간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실낱같은 기대에 대해 바로 “엉터리 없는 희망”이라고 단호히 덧붙이고 있는 부분은 만주국 시기의 간도의 위상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분명히 ‘희망’이 있었으나 그것은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허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허상’을 붙들고 모순투성이의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오족협화’가 대표적이다. 일제는 간도의 조선인들을 ‘오족’의 하나로 위치지었지만, ‘내선일체’의 논리를 동시에 구사하며 그들을 압박했다. 표면적으로 ‘평등’과 ‘공생’을 내세우는 ‘오족협화’는 실질적으로는 민족차별정책이었다. ‘오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을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족’의 순위를 일계(日界), 선계(鮮界), 만계(滿界), 한족, 몽고족으로 배열했다. 이러한 차별의 논리와 배치구도 안에서 재만조선인은 일본인과 더불어 매우 ‘특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조선인은 ‘만주국 국민’으로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만주국 내에서 중심을 차지하며, 만, 한, 몽 등의 중국인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제국의 관할에

놓이며 통제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특수'한 위치,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의 조선인들의 위치는 만주국 이전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주국 건국 이전에도 일제는 조선인 문제, 즉 재만조선인을 보호하거나 '불령선인'에 대한 특별을 대륙 침략의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항상 중일양국의 갈등 및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중국은 '조선인'을 일제의 앞잡이로 몰아 세웠고, 일본은 '불령선인'으로 탄압했다.²⁸⁾ 만주국 건국 이후에도 이같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일제는 만주국 내 여러 민족 간의 갈등과 모순을 조작하고 역이용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을 '대리자' 혹은 '매개자'로 활용했다. 재만조선인들의 처지는 말 그대로 '특수(特殊)'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대했던 '특수(特需)'를 누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특수(特需)'를 누리기 위해 조선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를 향해 몰려왔다. '사잇섬 농사' 때부터 애초에 간도 이주는 '살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만주의 조선인들은 생존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 했고, 그 안에서 '한 밀천'을 잡고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도 있었다. 즉 조선과 일본, 그리고 조선과 만주, 조선과 중국 '사이'에서 그들은 출세와 배신, 공모, 또한 희망과 용기, 투쟁 등의 수많은 '만주 이야기'를 낳았다.

그러나 이렇듯 '사이의 땅'으로서의 간도/만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1945년 종전/해방/패망 이후 순식간에 사라졌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침묵과 은폐, 망각의 무겁고 두터운 더미 속으로 묻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종전 후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국민국가 만들기의

28) 최봉룡, 앞의 글, 277쪽.

과정에서 개별 국가는 순수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통합을 유지하려 했고, 따라서 통합에 방해되는 불순하고 위험한 기억들은 은폐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되었다. 종전, 혁명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 이어지는 중국에서도, 패망과 군정 이후 경제대국으로 일어난 일본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남북한에서도 만주의 기억은 갈갈이 찢긴 채 각기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가 재구성하고 관리되었다. 남한에서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활동이 만주의 기억에서 배제된 반면, 북한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김일성과 그가 지휘하는 유격대의 항일투쟁 공간으로 만주에 관한 기억을 압축하고 단순화했다.²⁹⁾ 기억도 분단된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만주는 1960년대 전반기까지 완전히 망각된 공간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65년 한일협정과 남북관계의 긴장을 계기로 민족주의가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하면서, 만주의 기억이 민족의 과거사라는 범위 안에서 복원되기 시작했다.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만주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³⁰⁾ 첫째, 민족의 탄생 공간이자 옛 영토,³¹⁾ 둘째, 독립운동 기지이자 투쟁의 공간, 셋째,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현실의 공간, 마지막으로, 일제의 대륙침략기지이자 대동아공영권의 실현을 위한 제국의 공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띠는 만주의 기억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주로 선택되고 강조된 것은 첫

29) 신주백, 「분단과 만주의 기억」,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322쪽.

30) 신주백, 「만주인식과 파시즘 국가론」,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 해안, 2005, 115쪽. 김도형, 「한말·일제하 한국인의 만주 인식」, 『동방학지』, 144, 2008, 1-32쪽.

31) 만주를 역사적 고토로 인식하는 첫 번째 관점은 '기회와 출세의 땅'으로 인식하는 세 번째 및 네 번째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선조가 살든 古土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일제의 만주 개척의 정당한 동기와 명분이 되었다.

번째와 두 번째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부각되는 것은 두 번째로서, 만주 이야기는 독립운동사의 일부로 한국 사회에 수용되었다. 다양한 욕망의 전시장 같았던 만주의 복합적인 스펙트럼은 사라지고, “먼 과거의 화석화된 잔존물”³²⁾로 남게 된 것이다. 간도/만주의 기억이 이처럼 투쟁의 공간, 독립운동기지로 축소되고 한정되면서, 그 안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관한 이야기는 거대담론의 무게에 눌리고 사그라들었다.

만주 이야기는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독립운동’, ‘저항’, ‘투쟁’이라는 단순화된 기억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었을까? 들추고 싶지 않은 기억, 또는 공론장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기억들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존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만주에서 살아남았는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희망을 찾아 만주로 떠났던 사람들은 그들이 만주국에서 그 희망을 잠시나마 실현했던 것을 말할 수 없었고, 더욱이 만주국의 ‘특수’를 누렸던 사람들이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³³⁾ 만주의 현실과 판타지에 관한 깊이있는 논의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만주는 ‘민족’, ‘독립’, ‘저항’ 등 민족의 숭고한 가치를 언급할 때만 기억으로 복원될 수 있었다.

3. 운동주의 기억과 만주 이야기

32) 테사 모리스-스즈키, 임성모 역,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 아이누와 식민주의』, 산치럼, 2006, 55쪽.

33) 만주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일본 사회에서 각기 권력의 중심 세력을 창출하였다. 한석정 외, 「서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2008, 9쪽.

운동주는 1917년에 북간도 명동에서 태어나 1931년까지 그곳에서 성장했다. 1932년 은진중학교 입학 후 가족 모두가 용정으로 이사했고, 1938년 연희전문학교 입학을 계기로 사촌 송몽규와 함께 간도를 떠났다.³⁴⁾ 1935년 가을에서 이듬 해 봄까지 평양 숭실학교에 다녔던 시기를 제외하면 만 21년을 간도에서 나고 자란 명실상부한 ‘간도 사람’이다. 이런 까닭에 그의 사망 후, 독자들에게 운동주가 소개될 때 ‘간도 출생’은 ‘후쿠오카 감옥의 죽음’과 함께 가장 먼저 이야기되었던 내용이다.

해방 후 운동주가 시인으로 처음 알려지는 과정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그가 소개되는 시점, 그리고 그 시기와 운동주 당대와의 시차이다. 먼저 ‘시점’에 주목하면, 운동주가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인’의 이름을 얻게 되는 시기는 해방 직후이다. 1947년 2월 13일, 『경향신문』 지면에서 정지용은 ‘고 운동주’의 시를 다음과 같은 소개글과 함께 실고 있다.

1942년 6월3일 間島東村出生. 延專文科卒業. 京都 同志社大學英文科在學中 日本憲兵에게 잡히어 無條件하고二個年言渡. 福岡刑務所에서服役中 陰虐한注射 한 대를맞고 원통하고 아까운 나이二十九歲로갔다 日皇降服하던해二月二十六日에 日帝最後發惡期에「不逞鮮人」이라는名目으로 꽃과같은詩人을 暗殺하고 저이도亡했다. 詩人尹東柱의遺骨은龍井東墓地에묻히고 그의 悲痛한詩十餘篇은내게있다 紙面이있는대로 연달어 發表하기에 尹君보다도내가자랑스럽다—지용.³⁵⁾

“일경”에 의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른 간도 청년으로 운동주의 위상이 정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쓰여진 1947년은 해

34) 운동주의 생애에 대해서는 윤일주, 앞의 글, 207-220쪽.

35) 故 尹東柱, 「쉽게 써워진詩, 『경향신문』, 1947.2.13.

방 직후의 혼란과 이념의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였다. 식민지의 경험을 통과해 나왔지만, 지나온 시간에 대한 성찰은 아직 가능하지 않은 시기였다. 그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고, ‘만주’는 제국/식민지의 경험과 관련하여 우선적인 침묵 혹은 망각의 대상이었다.³⁶⁾ 정지용의 운동주 해설에 나타나는 ‘만주’의 위상도 당대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48년에 발간된 운동주 유고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序)>에서 그는 “뼈가 강한 죄로 죽은 운동주의 백골은 이제 古土 간도에 누워 있다”고 적었다. 만주가 아닌 간도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거기에 古土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만주’의 민족주의적 역사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 한가지 운동주가 소개되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차(時差)’에 있다. 그가 한국 시단에 처음 등장했던 시점에서 그 시차는 불과 2~5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광복’을 사이에 둔 두 시간 - 해방기와 일제 말기의 격차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 시차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유족과 지인들의 회고와 증언이었다. 운동주 이야기는 늘 ‘북간도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학시절까지 운동주와 함께 성장한 문익환 목사는 간도에 대해 가장 많은 회고를 남긴 인물이다.

명동은 북간도 민족운동의 요람이었고 정신적인 중심지였다.

거기는 북간도의 대통령이라고 하던 김약연 목사님이 사는 곳이었고 안중근 의사가 와서 권총 사격 연습을 하신 곳이다.

36) 해방기의 정치적 공간에서 ‘만주’는 실제적인 영토, 혹은 현재적 공간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의 시간이자 역사적 진공의 공간으로 다루어졌다. 해방 직후에 편찬된 교과서에 만주는 이 지역의 일제 침략과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서술했을 뿐 “만주에서의 역사를 배제”함으로써 “만주가 잊혀진 공간”이 되게 하였다. (신주백, 앞의 글, 320쪽 참조.)

그리로 모여든 우국지사들이 민족광복의 먼 앞날을 내다보며 오는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명동학교였다. 이 명동학교 출신들이 만주, 연해주 각처로 흩어져 민족운동의 핵심이 되었다.³⁷⁾

망국(亡國)의 울분을 짓씹으면서도 우리는 조국의 품안에 안겨있는 느낌이었다. 거기는 우리 선조들이 쌓았던 성터가 남아 있었고 땅속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쓰던 활촉이 무더기로 나왔고 절구같은 생활도구들이 땅을 가는 보습에 걸려 나왔다. 거기는 남의 나라가 아니었다. 거기만은 조국이 살아있던 것이다.³⁸⁾

문익환 이외에도 운동주의 아우인 윤일주, 고향 후배인 장덕순도 다음과 같은 간도 이야기를 전한다.

1910년대의 북간도 명동 - 그곳은 새로 이룬 흙냄새가 무럭 무럭 나던 곳이요, 조국을 잃고 노기에 찬 지사들이 모이던 곳이요, 학교와 교회가 새로 이루어지고, 어른과 아이들에게 한결 같이 열과 의욕에 넘친 기상을 용솟음치게 하던 곳이었습니.³⁹⁾

두만강 건너는 북간도 이곳은 우리 겨레의 이역 아닌 이역이다. 아름다운 해란강이 구비치는 아늑한 고장에는 버드나무 비수리나무 백양나무로 녹원(綠園)을 이룬 「용드레촌」이 있다. 우물에서 용이 트림을 치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적인 이 적은 도시가 간도의 서울 용정이라는 곳이다.

시인 동주는 다정다한(多情多恨)한 중학시절을 이곳에서 보냈고 그의 한줄 유골이 또한 이곳에 묻혔으니 이 용정은 과연

37) 문익환, 「동주, 내가 아는 대로」, 『문학사상』 1973.3. 303-304쪽.

38)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앞의 책, 307쪽.

39) 윤일주, 앞의 글, 207쪽.

“백골모래 아름다운 또다른 고향”인 것이다.

용정에서 동남쪽으로 몇십리 가면 ‘선바위(立岩)’의 의연한 기상이 서린 복지(福地)가 있다. 이곳이 왕년의 독립지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명동이다.⁴⁰⁾

유족과 지인들의 북간도 회고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독립운동의 거점”, “민족정신의 구심점”으로서 민족 교육이 이루어지던 곳,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운동주는 “민족운동의 요람”이자 “정신적인 중심지”인 간도, 그 가운데서도 “심장부”인 명동과 용정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그같은 간도의 민족적 환경이 운동주의 문학 수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회고된다. 이들의 회고에 따라 운동주의 이야기는 한 편의 민족 수난 서사⁴¹⁾로 수렴되거나, 혹은 박제된 민족주의적 풍경으로 복원되고 있다.

북간도.....애국지사들.....조국의 푸른 하늘.....반항의 시.....
그리고 시인 운동주. 이런 것은 어찌면 어떤 은연한 풍경같이
스사로운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⁴²⁾

40) 장덕순, 「동주와 나」, 『자유문학』 1959, 134쪽.

41) 1968년에 건립된 연세대학교 운동주 시비의 비문은, 북간도 출생으로 시작되는 운동주 이야기를 성장, 수난, 죽음으로 이어지는 민족 수난의 이야기로 수렴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운동주는 민족의 수난기였던 1917년 독립운동의 거점 북간도 명동에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고 1938년 봄 이 연희동산을 찾아 1941년에 문과를 마쳤다. 그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며 항일독립운동을 펼치던 중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모진 형벌로 목숨을 잃으니 그 나이 29세였다. 그가 이 동산을 거닐며 지은 구슬같은 시들은 암흑기 민족문학의 마지막 등불로서 겨레의 가슴을 울리니 그 메아리 하늘과 바람과 별과 더불어 길이 그치지 않는다. 여기 그를 따르고 아끼는 학생 친지 동문 동학들이 정성을 모아 그의 체온이 깃들인 이 언덕에 그의 시 한 수를 새겨 이 시비를 세운다. 1968년 11월 3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렇듯 1950~60년대 ‘운동주 이야기’에서 ‘간도’가 ‘독립운동의 요람’으로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만주 기억을 재구성”⁴³⁾하는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해방 후 국민국가 만들기의 과정에서 ‘만주’를 매개로 한 ‘운동주 이야기’의 구성은 이후 그에 관한 기억 상징을 민족주의 담론과 결합시키고 ‘민족시인’, ‘저항시인’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운동주의 유족들이 기억하는 ‘운동주의 간도/만주’ 기억도 ‘만주’의 공식적 역사 서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독립운동의 요람’으로서의 간도의 기억이 간도/만주의 역사와 삶의 중요한 핵심을 투영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만약 기억에 대해 ‘진위’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운동주 유족들의 간도 이야기는 분명 ‘틀린’ 기억은 아니다. 특히 1910~20년대의 북간도, 그 가운데서도 운동주의 출생지인 명동은 한일병합 이후 독립운동에 뜻을 둔 많은 사람들이 망명지로 선택했던 곳이었고, 운동주의 외삼촌인 김약연 목사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과 지인들이 복원하는 간도의 기억, 특히 명동을 중심으로 한 간도의 기억은 만주의 역사, 그리고 운동주의 만주 체험 가운데 단편적인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단편적인 조각을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하는 가운데 ‘단편’은 ‘전체’이자 오직 ‘하나’인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4. 만주 시기 운동주의 체험과 시

42) 이상비, 「시대와 시인의 자세」, 『자유문학』, 1960.12, 275쪽.

43) 신주백, 앞의 글, 328쪽.

운동주가 어린 시절을 보낸 명동촌의 형성 과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함경북도 회령, 중성의 김(金), 남(南), 문(文) 세 학자 집안은 1899년, 간도 명동으로 함께 이주해 중국인에게서 땅을 사들이고 마을을 이루었다. 그들이 정착한 이듬해, 운동주의 증조부인 윤재옥 가족이 이 마을 공동체에 합류했다. 그들은 공동으로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가장 먼저 자손들의 민족교육에 힘썼고, 후일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다. 고향을 떠나 북간도에 조선인들의 공동체를 건설한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다고 전하며 서로 협의하고 연대하여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여, 중국인들과의 갈등도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명동이 '복지(福地)'로 기억되는 이유이다.⁴⁴⁾

그러나 친척과 친구들로 둘러싸여 조선어를 배우고 말하는 환경, 그렇게 안온했던 친족공동체의 삶은 운동주가 명동을 떠나면서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그는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중국인 도시에 있는 중국인 학교에 편입하여 1년을 수학한다. 그 뿐만 아니라 송몽규, 김정우도 중국인 학교로, 문익환은 일본인 학교로 편입하는 등 명동의 소년들은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다.⁴⁵⁾ 이국 땅에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 뒤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간도 사람들의 운명, 또한 폐쇄적인 조선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삶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간도의 여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듬해인 1932년에는 가족 모두가 용정으로 이사하고, 운동주는 용정 은진중학교에 입학한다. 운동주 가족이 용정에 새로운 터전을 잡은 1932년은 만주국이 세워진 해였다. 3월 1일 만주국 건국 직후인 4월에 은진중학교에 입학한 운동주는 만주 전체가 큰 변화를 겪

44)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 앞의 책, 304-309쪽.

45) 윤일주, 앞의 글, 208쪽.

는 복잡한 시기에 예민한 성장기를 보냈다. 그가 입학한 은진중학교는 영국조계지 내에서 캐나다 선교부가 운영하는 미션계 학교였고, 조선인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한 선교사들 덕분에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교육 환경이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집과 학교는, 1909년부터 일제의 대륙침략의 창구 역할을 했던 일본 간도총영사관, 그리고 독립운동 밀사들의 치료나 비밀 회합 장소로 자주 이용되던 제창병원과 지척에 있었다.⁴⁶⁾ 도시 전체에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 영국, 독일인 등이 오고 가고 충돌하고 종종 싸움과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만주국 건국 이후에는 빠르게 자본주의의 흐름에 휩쓸려 가던 용정에서 운동주는 인생의 중요한 성장기를 보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운동주의 삶에 큰 변화와 충격이 되었던 사건은 1935년 가을, 평양 숭실중학교로의 전학이었다. 이듬해 봄까지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동주에게는 이때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조선 땅에서 체류하는 기회였다. 운동주가 재학 중이던 기간에 숭실중학교는 신사참배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당시 민족교육기독교교육 이념을 따르던 숭실중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이를 격렬히 거부했고 학교는 폐교되었다. 문익환과 함께 숭실에 재학 중이던 운동주는 이듬해 봄 다시 용정으로 돌아와 일본학교인 광명중학교에 편입한다. 당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해야 했는데, 은진은 4년제였고 숭실에서 중학과정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⁴⁷⁾

6개월 사이에 용정과 평양을 오가며 성격이 다른 세 학교를 옮겨 다닌 이 시간은 운동주의 내면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

46) 은진중학 시절에 대해서는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앞의 책, 310-311쪽, 윤일주, 앞의 글, 209쪽 참조.

47) 문익환, 같은 글, 312-315쪽, 윤일주, 같은 글, 209-210쪽 참조.

로 보인다.⁴⁸⁾ 첫 조선 체류였고 고국에서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생각에 기대도 컸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첫 인상은 여지없이 그의 기대를 깨뜨렸다. 평양에 머무는 동안 창작한 시에서 운동주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좁은 ‘닭장’ 안에 갇힌 채 “주절대”는 “닭”의 형상에 비유하고 있다.

한 칸 계사 그 너머 창공이 깃들어
자유의 향토를 잊은 닭들이
시든 생활을 주절대고,
생산의 고로(苦勞)를 부르짖었다.

음산한 계사에서 쏠려 나온
외래종 레그혼,
학원(學園)에서 새무리가 밀려 나오는
삼월의 맑은 오후도 있다.

닭들은 녹아드는 두엄을 파기에
아담한 두 다리가 분주하고
굽주렸던 주두리가 바지런하다.
두 눈이 붉게 여물도록 —

— 1936년 봄, 「닭」⁴⁹⁾

운동주가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닭장 안에 갇힌 닭’에 비유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사람들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의 고로(苦勞)”를 담당하느라 힘겨운 처

48) 윤일주는 이 시기에 대해 “가장 문학적인 의욕이 고조된 듯한” 시기였다고 술회한다. 윤일주, 같은 글, 210쪽.
49) 본고는 홍장학이 엮은 『정본 운동주 전집』(문학과 지성사, 2004)를 텍스트로 삼았다. 운동주 시의 개작 과정은 왕신영 외 엮은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 전집』(민음사, 1999)을 참조하였고, 작품 명 앞에 창작 일자를 함께 적었다.

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시든 생활”은 “잊”어 버린 “자유향토”라든가 닭장 너머로 보이는 푸른 “창공”과 대비되어 있다. 그리고 “분주”한 “두 다리”, “굽주렸던 주두리”, “붉게 여”문 “두 눈” 등의 구체적인 묘사는 그들이 겪는 고된 노동의 과정을 전달하고 있다.

허물어진 성터에서
철모르는 여아들이
저도 모를 이국말로,
재질대며 땀을 뺀다.

— 1936.3.24. 「모란봉에서」 부분

위의 시도 운동주가 조선 땅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한 풍경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어린 여자 아이들이 “저도 모를 이국말로” 재질거리며 뛰어 노는 풍경. 여기서 “이국말”이란 틀림없이 일본어를 가리킬 것이다. 어쩌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하나의 작은 풍경에서 운동주는 예리하게 그 시대의 아이러니를 포착하고 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지배자의 통치 언어, 다시 “철모르는” 아이들의 언어와 “허물어진 성터”의 퇴락한 풍경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조선의 과거와 현재가 대비를 이룬 가운데 그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저도 모를 이국말”을 “재질대는” 모습은 식민지 조선의 비극적인 한 순간을 날카롭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그러한 풍경은 운동주가 조선에서 기대했던 광경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조선땅에서 ‘조선’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가 발견했던 것은 “저도 모르”게 이미 일본이 되어 가고 있는 식민지 조선의 풍경이었고, 일본이 되기를 거부할 때 조선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승실중학교의 신사참배거부로 인한 폐교는 이같은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현실에서 그는 “꿈이 깨어지”고 “탑”이 “무너지”는 듯한 큰 충격을 받는

다. 평양 체류 중 창작해 이듬해 용정으로 돌아와 개작하여 완성한 아래 시에서 운동주는 “꿈”이 “깨어”진 뒤의 “눈물과 목메임”을 이야기한다.

꿈은 눈을 뗐다.
그윽한 유무에서.

노래하던 종다리.
도망쳐 날아 나고.

지난날 봄 타령 하던
금잔디밭은 아니다.

탑은 무너졌다.
붉은 마음의 탑이—

손톱으로 새긴 대리석 탑이—
하루 저녁 폭풍에 여지없이도.

오— 황폐의 쑥밭,
눈물과 목메임이여!

꿈은 깨어졌다.
탑은 무너졌다.
- 1935.10.27. 탈고(1936.7.27. 개작) 「꿈은 깨어지고」

이 시에서 운동주가 그리는 “황폐의 쑥밭”이란 그가 발견한 조선의 풍경이기도 하고 그 자신의 내면 풍경이기도 하다. “마음의 탑”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떠받쳐 온 정신적인 기반이 “여지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며, “꿈”이 “깨어졌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현재의 시간이 갑작스레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가리킨

다.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충격을 감당하며, 운동주는 유년시절 명동이라는 공간이 제공했던 안온한 공동체의 삶에서 벗어나 조선을, 그리고 만주를 대상화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평양 체류 초기에 탈고하여 이듬해 용정으로 돌아온 뒤에 개작한 <꿈은 깨어지고>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난 운동주 내면의 변화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작품이다. 그가 남긴 습작 노트에는 이 시기에 창작한 시 15편 가량이 기록되어 있다. 정체성을 뒤흔드는 내면의 변화가 시 창작에 깊이 몰입하는 시간으로 이어진 듯하다. 용정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러한 시간은 계속되었다.

헌 짚신짝 끼우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엔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 집.

- 1936.1.6. 「고향 집 - 만주에서 부른」

밭줄에 걸어 논
요에다 그린 지도는
간밤에 내 동생
오줌 싸서 그린 지도.

꿈에 가 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돈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돈가?

- 1936년 초(추정) 「오줌싸개 지도」

운동주가 습작노트에 적어 놓은 창작연대에 따르면, 첫 번째 시는 송실중학 재학 중에 쓴 작품으로 추정된다. 시인이 평양 체류 중에 창작한 이 시는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만주에 있는 화자가 그가 떠나온 “따뜻한” “남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 작품이다. 비슷한 시기에 창작한 두 번째 시는 조선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먼 곳에 떨어져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두 편의 시에서 모두 “두만강” “건너” “만주 땅”은 그리움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다. 만주가 고향인 운동주는 어떤 마음으로 위와 같은 시를 쓴 것일까? 그의 시에 등장하는 만주는, 머나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쓸쓸한” 곳이거나 혹은 “돈 벌러 가”는 곳이다. 만주는 이주와 이별을 만들어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쓸쓸함’과 ‘그리움’의 감정을 끌어내는 장소이다.

운동주의 고향 후배인 장덕순은 당시 『카톨릭 소년』 지에 발표한 <오줌싸개 지도>를 읽고 “그때 나는 엄마 아빠 다 있는 그가 어찌면 저렇게 외롭고 구슬픈 동요를 썼을가 하면서 그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⁵⁰⁾고 회고했다. 이 무렵 운동주는 이미 자신이 발달된 선 조건과 심리적 결별을 하고 대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듯하다. 이 시기부터 습작품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만주에 관한 시도 많아지지만, 운동주는 자신의 고향인 간도 혹은 만주를 섣뚱 ‘고향’이라 부르지 못한다. 다만 “북쪽”, “북쪽 하늘”, “북간도”라고 지리적 위치만을 지칭하거나 혹은 “이 땅”, “고장” 등의 지시어나 일반적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그의 유족과 지인들은 회고담에서 간도를 운동주의 고향으로 지칭하고 있지만, 생전에 시인 자신은 ‘고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주저했다. ‘고향’을 언급한 몇 안되는 작품인 <또 다

50) 장덕순, 「동주와 나」, 『자유문학』, 1959.3, 135쪽.

른 고향>에서도 그는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다시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고 쓰고 있다. 실제의 고향은 그에게 진정한 고향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묻고 또 물으며 ‘길’ 위에서 서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그의 눈에 비친 ‘고향’ 만주의 모습은 지극히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포착된다.

사이좋은 정문의 두 돌기둥 끝에서
오색기(五色旗)와, 태양기(太陽旗)가 춤을 추는 날,
금을 그은 지역의 아이들이 즐거워하다.

아이들에게 하루의 건조한 학과로,
해말간 권태가 깃들고
‘모순(矛盾)’ 두 자를 이해치 못하도록
머리가 단순하였구나.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

- 1936.6.10. 「이런 날」

위 시에 등장하는 “오색기”는 만주국의 국기이고 “태양기”는 일제의 깃발이다. “오색기”는 다섯 가지의 색깔로, 만주국을 구성하는 오족(五族), 즉 일본인, 조선인, 한족, 만주족, 몽고족의 ‘협화(協和)’를 상징한다. 오족 안에 이미 일본이 한 성원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족협화”의 논리를 따른다면 “태양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오색기” 옆에 따로 “태양기”가 “춤을 추는” 현실은 “협화”의 이념을 내건 만주국이 실상 일제의 식민지라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두 깃발 사이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만주국의 “모순”적 현실이 냉정한 거리를 두고 제시되어 있다. 아

래 시도 만주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저쪽으로 황토 실은 이 땅 불바람이
호인(胡人)의 물레바퀴처럼 돌아 지나고,
아롱진 사월 태양의 손길이
벽을 등진 설운 가슴마다 울울이 만진다.

지도깨기놀음에 뉘 땅인 줄 모르는 애 둘이,
한 뺨 손가락이 짧음을 한(恨)함이어.

아서라! 가뜩이나 얽은 평화가,
깨어질까 근심스럽다.

- 1936년 봄, 「양지쪽」

“지도깨기놀음”에 빠진 아이들의 모습은 만주땅을 놓고 벌어진 열강의 패권 다툼을 비유한다. 평등과 화합을 내세우는 만주국의 이면에는 실상 열강의 패권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지배가 전제되어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만주 시기는 운동주의 전체 문학 세계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시기이다. 만주의 안과 밖, 그리고 조선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실제적인 체험과 현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이 시기의 운동주는 조선과 간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기대했던 모국 조선의 생활은 식민지의 착종된 현실로 다가왔고, 그가 나고 자란 고향 간도에는 ‘협화’의 논리와 민족 차별의 현실이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기 운동주의 시에는 ‘나’와 타인, 그리고 타인과 타인, 지역과 지역을 가르는 ‘경계’를 예리하게 인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가령 ‘모국’ 안의 ‘다른 언어’(이국말)에 대한 예민한 포착, “만주땅”과 “고향”을 가르는 “두만강”이라는 경계, 그리고 “오색기”와 “태양기”의 차이/

차별과 위계에 대한 인식에서 “경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그의 섬세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명동을 떠나 용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다시 용정과 평양을 오가는 그의 경험은 명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친족공동체적 경험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명동공동체와 은진중학에서 그가 받은 교육은 민족주의적 의식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그가 경험한 현실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⁵¹⁾ 생애 처음으로 방문한 모국 땅에서 뜻모를 일본어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은 조선어를 절대적으로 수호해 온 간도 조선인공동체의 상황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제국은 식민지를 낳았고 식민지/제국 체제는 수많은 이산자를 만들어냈다. 특히 1930년대 만주는 떠나고 이주해오는 사람들

51) 북간도 명동의 조선인 공동체와 은진중학에서 운동주가 교육받은 민족주의는 민족의 문화적 동일성을 기초로 한 반제국주의적 내셔널리즘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 운동과 담론 역시 이같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민족주의 이념이 “민족적 권리 뿐만 아니라 남을 배제시킬 상징적 힘을 생성시키는 독자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두아라에 따르면, 민족주의는 “구획된 영토 내에서 진화된 주권적 인민”을 기초로 한다. 영토, 역사, 인민이라는 3원적 관계를 충족할 때 민족주의는 민족의 정체성과 권리를 낳는 기초가 되지만, 그러한 3원 관계 안에 포괄되지 못하는 타인을 배제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두아라, 한석정 역, 위의 책, 37-77쪽 참조.) 운동주 이전의 간도 조선인 세대는 간도가 ‘조선의 연장’이라는 인식에 있었거나 혹은 ‘언젠가는’ 영토와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운동주의 경우, 간도가 조선의 영토 ‘밖’이자 일본 제국의 ‘외지(外地)’라는 인식을 명확히 했음을 그의 시가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만주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외양을 하고 있을 뿐 다양한 민족의 갈등이 존재하는 특수한 공간이며, 그 안에서 ‘타인을 배제하는 상징적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타인과의 경계와 관계, 공생과 공감에 대한 문제에 몰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를 달리하여 다룰 계획이다.

로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운동주 역시 만주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과 일본 제국의 관계, 그리고 다시 만주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의 관계와 차이, 그 안에서 형성되는 위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만주 시기에 습작한 운동주의 시는 조선어와 조선 민족이 절대 수호의 가치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차별과 위계를 낳는 식민지/제국 체제의 모순, 또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산의 경험과 이산자의 존재를 조명하고 있다.

이처럼 만주 습작기에 나타난 '경계'에 대한 예민한 감각, 그리고 다양한 위계와 경계를 낳는 식민지/제국 체제의 복잡한 조건에 대한 인식은 이후 운동주의 창작 과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주 습작기의 시가 간도/만주, 조선의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경성과 일본에서 창작한 시들은 '나'와 타인, 혹은 타인과 타인,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의 경계를 예민하게 지각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화상」에서 그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사나이'라 부른다. 「또 다른 고향」에서는 '나', '백골', '아름다운 혼'으로 나누어진 자아를 확인하며, 어느 것이 '나'인지를 묻는다. 산문 「별뿔 떨어진 데」에서는 '나무'와 '나'를 비교하며,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런 과제를 봉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나무"와 달리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우적거리는" '나'의 상황을 대비하며 인생의 방향을 자문하고 있다.

운동주에게 간도/만주는 예민하게 '경계'를 지각하게 하는 매개적 장치의 기능을 했다.⁵²⁾ 간도는 조선의 밖이자 제국의 안이었고, 또

52) 선행연구에서 오문석은, 평양 유학 이후 운동주가 "만주의 지역성'에 대한 선명한 인식에 도달"했고 이후 "만주의 지역성이 운동주의 주체 형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고 보고 있다. 그가 파악하는 '만주의 지역성'이란 "만주를 중심으로 일본, 조선,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형성되는 양상"을 가리킨다. 이

한 운동주 개인에게는 고향이면서 모국의 바깥이었다. 그는 경계 바깥에 있었기에 조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다시 간도를 떠나와 조선과 일본에 머물면서 간도의 복잡한 조건과 자신의 혼란스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계에 대한 인식은 소속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그는 '경계 이 편'에서도 '저 편'에서도, 고향 간도와 모국 조선, 일본 제국의 도시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쉽사리 어느 한 편으로 자신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⁵³⁾ '경계'에 서서 경계의 이 편과 저 편을 살피고 있다. 그가 자신의 고향과 모국,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경계'라는 그의 자리에서 비롯된 힘일 것이다. 연희전문 재학 시절과 일본 유학 이후의 시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탐색한다.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시 가운데 「자화상」, 「또 다른 고향」, 「길」, 「참회록」 등에서 이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흔히 기독교시로 분류되는 「십자가」, 「무서운 시간」, 「또 태초의 아침」 등은 절대적 타자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운동주는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⁵⁴⁾인 바로 이 장소에서 '경계' 너머의 사

에 대해서는 오문석, 「운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 『한국 근대문학연구』 25, 2012, 149-176쪽 참조.

53) 엄밀하게 말해 당시 운동주가 자신의 소속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완전한 조선인도, 일본인도, 만주 국민도 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54) "남의 나라"는 운동주가 1942년 6월 도쿄 릿쿄대학 재학 중에 쓴 「쉽게 씌어진 시」의 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흔히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민족현실이나 "남의 나라"에서 죽어간 운동주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운동주에게 "남의 나라"가 아닌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태어난 간도, 식민지 조선, 그리고 유학 후 일본 제국의 도시 그 어느 곳도 "남의 나라"가 아닌 곳은 없었다. 본고에서는 "남의 나라"라는 그

람들, 타인들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오래도록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르게네프의 언덕」, 「병원」, 그리고 일본 유학 후의 「간판 없는 거리」에서 이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를 달리하여 좀더 상세하고 깊이있게 다룰 계획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만주 습작기와 연회전문, 일본 유학 시기 운동주의 시에는 '경계'에 대한 예민한 태도, '경계인'으로서의 조건에 대한 자각이 드러나고 있다. 식민지 조선, 혹은 제국을 중심으로 그는 '경계' 바깥에 있는 존재였지만, 쉽사리 어느 한 편에 소속되지 않고 '경계인'으로서의 시선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의 시가 보여주는 이러한 지점들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주류 담론으로 자리잡는 민족주의적 관점으로는 포착되기 어렵다.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고정된 '독립운동의 요람, 만주' 이야기와 '민족시인 운동주' 이야기의 자장 속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운동주와 그의 시는 가려지고 흐릿해졌다. 이야기의 빈 틈, 균열과 갈등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운동주 이야기에서 말하지 않았던 것, 혹은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만주 시기 운동주의 시는 다시 주목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의 시구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인'으로서의 그의 관점, 또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이동성과 무소속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尹東柱」, 188-189쪽(한국어판, 정지영 외 편저, 앞의 책, 삼인, 2015, 300-301쪽.)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운동주 이야기의 출발점인 간도가 '독립운동의 요람'으로 기억되는 것과 한국 사회에서 만주의 기억이 '독립운동사'의 범위 내로 축소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방 후 한국의 근대국민국가 만들기의 기획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정통성과 순수성, 정체성을 거스르는 불온하고 불순하거나 모호한 기억들은 배제되거나 망각되는 반면, 그밖에 '순수'하고 선명한 기억들이 선택되고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간도/만주의 복잡한 맥락을 단순화시키는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간도/만주를 지배와 저항의 구도 내에 배치시킨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서 경계 밖의 침입 혹은 지배자와 그에 대한 저항의 관계 속에서 대상을 파악하며, 이 구도와 관계 안에 배치되기 어려운 복잡하고 모호한 맥락과 존재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경계 안으로 끌어당겨 동일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운동주 이야기가 간도 이야기로 출발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며 문제적이다. 운동주 이야기는 '독립운동의 요람'에서 태어난 운동주를 한국독립운동사의 한 흐름으로 흡수하며, 그를 '저항'의 맥락에 위치짓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지배-저항의 구도 안에도 다양한 맥락과 흐름이 존재했다. '저항' 편에는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있었고, 또한 그들을 포함해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많은 '저항' 세력들이 전향하고 일제에 협력하거나 혹은 다른 체제를 선택하기도 했다. 운동주는 이러한 복잡하고 난감한 이데올로기와 친일의 혐의에서 비껴서 있던 사람이었고, 따라서 '저항'의 대표로서 선택되기엔 문제가 없는 인물이었다. 일제 협력과 선동, 동원, 침묵, 은둔 등 추문으로 얼룩진 일제 말기라는 역사적 시간에 그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암흑기의 별"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암흑기의 별"이란 비유적 표현은 그만큼 홀로 빛나는 밝은 '별' 주변에 깊디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별'을 기억하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어둠’의 심연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았다. 다만 그 시대는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시절’이었을 뿐이다.

운동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운동주를 ‘암흑기의 별’, 다시 말해 ‘암흑기’에 저항한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자 ‘민족시인’, ‘국민시인’으로 기억할 때, 국민국가의 경계 밖에서 그 경계를 의문시하고 경계가 만들어내는 문제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했던 경계인으로서의 운동주의 존재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는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부단히 경계를 넘나들며,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계 안에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려야 하는지, 얼마나 소외되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뿌리깊이 체험하고 날카롭게 인식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간도/만주는 그에게 그러한 ‘경계’를 예민하게 지각하게 하는 매개적 장치의 기능을 했다. 그는 경계 바깥에 있었기에 조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다시 간도를 떠나와 조선과 일본에 머물면서 간도의 복잡한 조건과 자신의 혼란스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간도, 조선, 다시 간도, 조선, 일본 등으로 이동하고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느 하나로 단일화할 수 없는 여러 개의 ‘나’를 확인한다.

이렇듯 운동주의 삶과 내면, 그의 문학세계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그를 칭하는 ‘민족시인’, ‘국민시인’이라는 제한된 호칭⁵⁵⁾은

55) 1948년 운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된 이후, 운동주 문학에 관한 문학사의 합의된 평가는 대체로 ‘저항’, ‘민족’ 혹은 ‘순수’라는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왔다. 그의 시가 저항시, 민족시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의미에서 저항시라고 볼 수 있는가, ‘저항성’을 담보하는 것은 시인의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인가라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저항’

운동주의 정체성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주하지 못한 자, 달리 말해 ‘조국’,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와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이동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그의 사후 한국 사회에서 구성한 공식 기억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간도’라는 지명의 기원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간도 사람 - ‘사잇섬’에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어느 곳에도 온전히 귀속되지 못한 자로서의 정체성이 운동주와 그의 문학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잇섬’ 간도에서 제국 만주에 이르는 만주 지역의 역사와 해방 후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만주의 기억이 민족 이야기, 독립운동사의 일부로 수용되는 과정, 그리고 간도 출신 운동주의 이야기가 민족 이야기와 매개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그에 관한 공식 기억이 ‘민족시인’, ‘국민시인’이라는 제한된 이름으로 구성되며 그의 기억을 전유하는 과정을 고찰하였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전유된 운동주의 기억이 그의 삶, 문학적 정체성과 격차를 빚어내고

과 ‘민족’을 한 축으로 하는 담론이 한 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에 그의 시의 ‘내면성’, ‘서정성’, ‘부끄러움의 미학’ 등 ‘순수’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이 있다. 이때 ‘순수문학’이란 ‘비문학적인 것’, 즉 현실, 역사, 정치적 상황 등을 떠나 오로지 ‘문학정신만을 옹호’하는 문학을 일컫는다. ‘순수’라는 말의 사용법을 따르자면 ‘순수’와 ‘저항’, ‘민족’은 서로 이질적이고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담론에서 두 개의 항은 “배타적”이고 “자의적”으로 결합하며 서로 보완과 견제, 상승의 효과를 낳는다. 두 개의 축은 서로를 오가면서 보완하고 견제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운동주에 관한 수많은 회고담, 평론, 학술논문, 그리고 최근에는 소설과 연극, 영화, 뮤지컬, 오페라 등이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지만, 새로운 담론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민족’과 ‘저항’, ‘순수’ 문학 담론의 자장 안에서 연계 맺으며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운동주 문학에 대한 탈식민주의, 트랜스내셔널리즘, 디아스포라, 다문화주의 등이 기존의 ‘민족’, ‘저항’과 연결된 채 거기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새롭게 변형하려는 시도라면, 최근 영화 <동주> 상영 등 미디어를 매개로 한 ‘운동주 현상’은 ‘순수’를 축으로 운동주의 삶과 시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격차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운동주 담론의 서사 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의 구조는 그의 삶에 대한 이해와 시 읽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운동주 이야기의 반복성을 통해 강화되는 민족주의적 해석과 평가의 관점은 운동주 문학 읽기에 제한된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저항시인’, ‘민족시인’, ‘국민시인’ 등 한국 사회에서 운동주를 부르는 낯익은 칭호들은 이러한 프레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작 운동주의 삶과 시는 민족주의적 프레임 안에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이민자의 후예로서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고, 그의 시에는 “남의 나라”에서 타민족과 함께 사는 일, 혹은 비국민으로서 사는 일에 대한 갈등과 불안, 깊은 고민이 나타나있다. 본고는 운동주 문학을 바라보는 민족주의적 시각, 또는 운동주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관점과 사고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구성된 민족 이야기, 만주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환기하고자 했다. 그의 문학에 나타난 이산(diaspora)와 분산(dispersion), 그리고 타자와의 공존과 공감의 문제는 운동주 문학과 그에 대한 기억을 재고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왕신영·오오무라 마스오·심원섭·윤인석 편, 『사진판 운동주 자필 시고 전집』, 민음사, 1999.
- 홍장학 편, 『정보 운동주 전집』, 문학과 지성사, 2004.
- 안수길, 『북간도』, 동아출판사, 1995.
- 『개벽』, 『第 1線』, 『동광』, 『한겨레』, 『매일경제』, 『뉴시스』, 『한국일보』, 『연합뉴스』
- 김도형, 「한말·일제하 한국인의 만주 인식」, 『동방학지』 144호, 2008, 1-32쪽.
- 문익환, 「하늘·바람·별의 시인 운동주」, 『월간중앙』, 1976.4, 304-320쪽.
- 송우혜, 『운동주 평전』, 서정시학, 2014, 1-562쪽.
- 신주백, 「만주인식과 파시즘 국가론」,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 해안, 2005, 135-159쪽.
- 신주백, 「분단과 만주의 기억」, 한석정·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319-335쪽.
- 오문석, 「운동주와 다문화적 주체성의 문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12, 149-176쪽.
- 윤일주, 「선백의 생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55, 207-220쪽.
- 이성환,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살림, 2004, 20-24쪽.
- 이지영, 「19세기 말 청조의 대 간도조선인 정책 - 越嶲 韓人의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명청사연구』 32, 2009, 257-280쪽.
- 장덕순, 「동주와 나」, 『자유문학』, 1959.3, 134-138쪽.
- 정명교, 「운동주가 우리 마음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는 사실의 의미」, 『운동주 시인 유고, 유품 기증 특별전 자료집』, 연세대학교 운동주 기념사업회, 2013, 54-59쪽.
- 최봉룡, 「만주국의 국적법을 둘러싼 딜레마 : 조선인의 ‘이중국적’

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호, 2011, 273-304쪽.

한석정 외, 「서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 2008, 3-18쪽.

이와사키 미노루·이타가키 류타·정지영, 「기억으로 동아시아 생각하기: ‘동아시아 기억의 장’ 탐색」, 『역사비평』 102, 2013, 285-288쪽.

金信貞, 「尹東柱」, 板垣 竜太、鄭智泳、岩崎 稔, 『東アジアの 記憶の場』, 河出書房新社, 2011, 166-191쪽.(한국어판: 김신정, 「운동주」, 정지영·이타가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저,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2015, 270-304쪽.)

P. 두아라,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21-90쪽.

<https://ko.wikipedia.org/wiki/>

Abstract

The Story of Manchuria and the memory of Yun Dong-ju

Kim, Shin J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story of Yun Dong-ju’ is transferred to ‘the story of Manchuria’, especially ‘Manchuria’ as a tool to recompose the memories of him, while focusing on the way that the Korean society remembers him. The story of Yun Dong-ju, who was born in “the cradle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llustrates him as one who was considered the icon of the history of the movement and regards him in the context of “resistance.” However, it is often neglected that Yun Dong-ju was a ‘marginal man’ who constantly stood aside from the boundary of a nation-state, raising the questions on it, and distinctly took the problems of this marginality in account if we remember him as “the star in the dark age” - resistance poet, patriotic poet, and nationalist poet. In fact, Yun Dong-ju situated himself outside the boundary and continually crossed the distinction between two cultures, while being aware of the marginality. Gando, the area in Southern Manchuria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has also to do with why he was sensitive to the issue of ‘marginality’. His birth place is the method to lead him to

observing the issue of marginality because Gando was the part of the territory of the Japanese Empire and also it was his hometown, but located outside of Joseon, his motherland. Yun Dong-ju was able to observe the status of Joseon objectively because he was outside the boundary. Later, he understood his true identity which was confusing at first and recognized the complex conditions of Gando by leaving from the place and being outside of Japan and Joseon.

He lived his life as a descendant of an immigrant and constantly crossed the boundary among three cultures. Therefore, his poems describe the discomfort of living in “other country” with foreigners and often reflect his anxiety and concern as a noncitizen. This paper proves that the Korean society’s nationalist perspective on Yun Dong-ju’s literature, and how his literary works are perceived and comprehended in the society was the result of composing the past discourses, which was the partial understanding of him.

Key Words : Yun Dong-ju, memory, Gando, the story of Manchuria, the story of Yun Dong-ju, marginality

투고완료일 : 2016. 11. 15. 심사완료일 : 2016. 12. 15. 게재확정일 : 2016. 12. 20.